

Daily Auto Check

2023. 4. 14 (Fri)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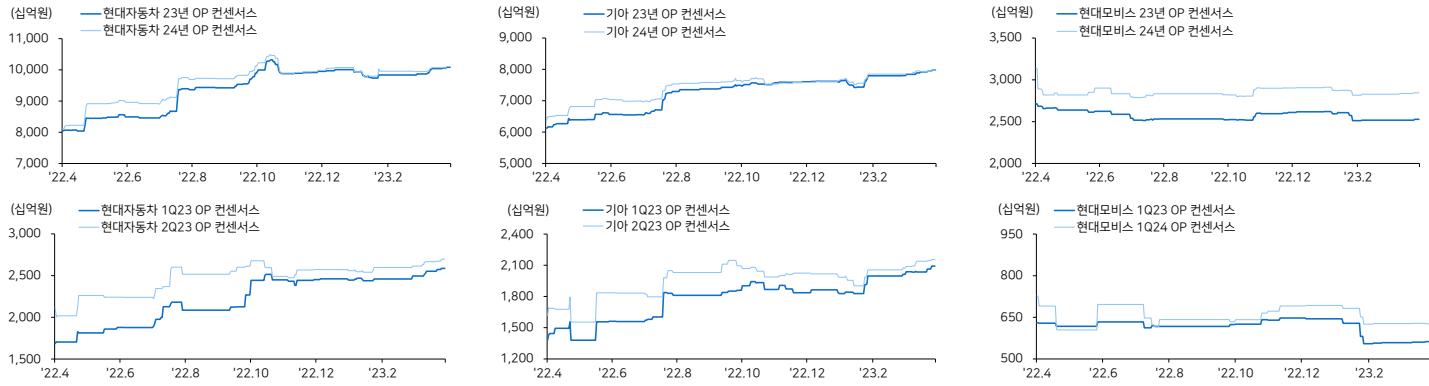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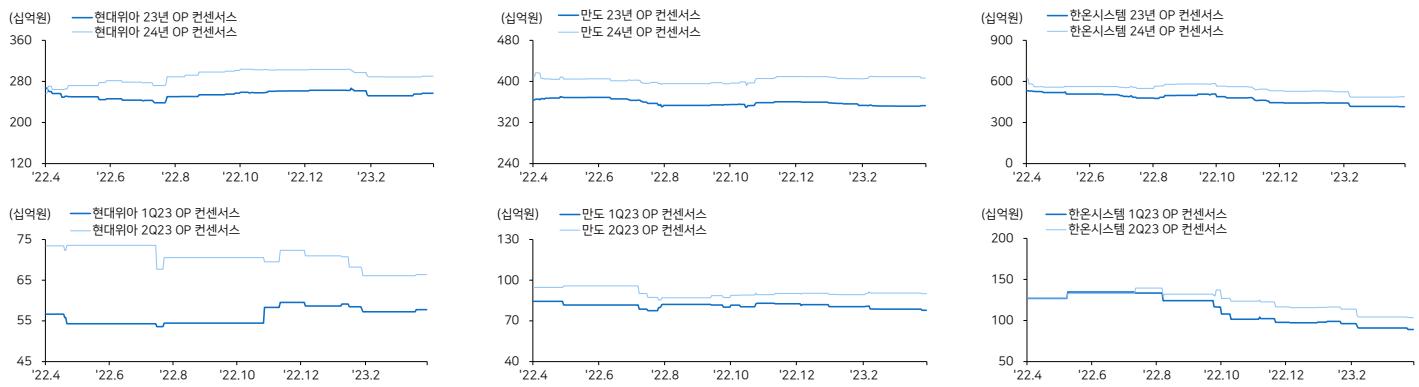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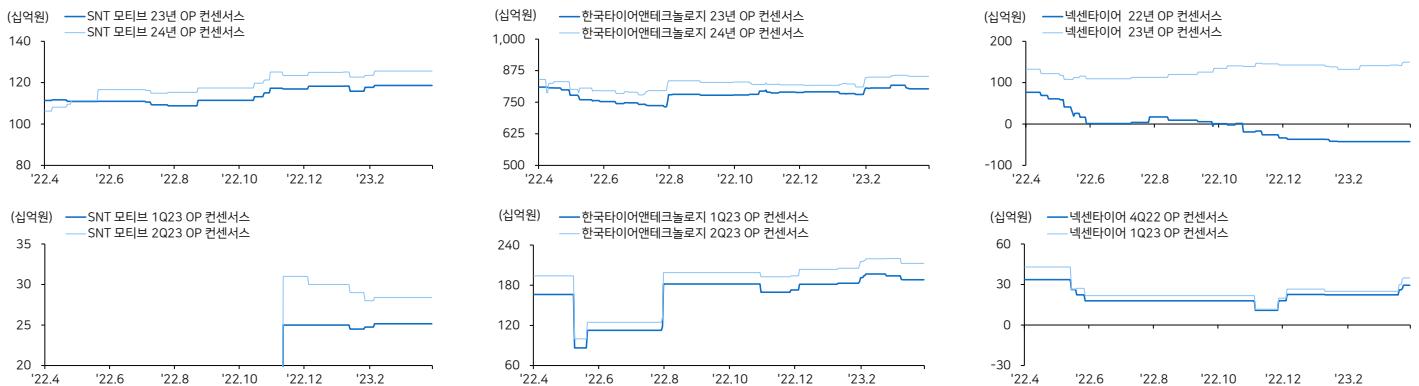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美 전기차 비율 3.9→67%로 올려야(조선일보)

12일(현지시각) 미국 EPA 청정은 '2032년 미국 신차판매의 2/3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언급.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는 '27년부터 마일당 오염물질 평균 배출량을 '26년 186g에서' 32년 82g까지 56% 줄이는 것이 핵심.

<https://bit.ly/3KXLgPX>

기아, 11월부터 美 시장에 EV9 본격 공격…조건부 3단계 자율주행 가능(글로벌이코노믹)

기아는 오는 11월 EV9을 미국 딜러들에게 공급해 본격적인 미국 대형 전기 SUV 시장공략에 나설 전망. EV9이 3열 SUV로써는 처음 선보이는 전동화로일인 만큼 현지 언론에서 높은 기대 중.

<https://bit.ly/3KEZPqa>

Biden looks to boost EV sales with plan to cut vehicle emissions (Reuters)

EPA는 2032년까지의 새로운 배출 규제를 발표하며, 이는 신차 판매 3대 중 2대가 전기차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언급. 2027년~2032년 연평균 13%의 배출량 감소는 2055년까지 90억톤 이상의 CO2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

<https://reut.rs/3GGxbDU>

Lack of electric vans opens door for Chinese, other EV makers (Reuters)

레거지 완성차 업체들의 높은 상업용 EV 밴 시장 진출이 중국 SAIC 등 디제로업체에게 벌판을 마련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분석. 플랫 고객들은 포드/스텔란티스/벤츠 등의 기존 업체로부터 충분한 EV 밴을 구하지 못해 대안을 모색.

<https://reut.rs/3GfR1c>

신형 코나' 전기차로 나왔다…1회 충전에 417km '동급 최대'(뉴스1)

현대차는 소형 SUV 코나 EV 출시를 발표, 64.8kWh 배터리를 장착, 산업부 인증 기준 417km의 1회 충전주행거리를 갖춘. 가격은 4,654만원 ~ 5,323만원 수준이며, 개소세와 구매보조금을 반영한다면 3,000만원 초중반 수준.

<https://bit.ly/3zUnOnh>

TSLA share of the US EV market is declining, but there's more to the story (electrek)

언론에서 1~2월 자동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테슬라의 미국 판매점유율이 58%로 감소했다는 것을 지적했으나, 테슬라는 분기초 수출 물량 생산으로 1~3월 배송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럴 경우 점유율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

<https://bit.ly/3KVRCjh>

Ford rolls out UK's first hands-free driving tech and first-of-its-kind system approved in Europe (electrek)

포드의 헌츠프리 주행보조 시스템인 '블루크루즈'는 영국 교통부 승인을 받음. 현재 영국 전역의 사전 매핑된 고속도로에서 사용이 승인되어 '23년형 머스탱 Mach-e 모델부터 사용 가능. 월 구독료는 22.5달러 수준.

<https://bit.ly/3o51m1m>

Lucid's first-quarter vehicle production, deliveries fall sequentially (Reuters)

루이드는 1Q23 2,314대 생산, 1,406대 인도량을 발표. 이는 지난 분기(3,493대 생산, 1,932대 인도)보다 낮은 수치.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생산량 가이던스는 10,000~14,000대로 이미 컨센서스보다 낮아진 상황.

<https://reut.rs/3zX5jC4>